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4년 5월 27일(화) 조간
	담당자	권규호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41, kwonkh@kdi.re.kr) 오지윤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74, jiyooh@kdi.re.kr)
	배포일시	2014년 5월 26일(월)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권규호 KDI 연구위원
오지윤 KDI 연구위원

본고는 5월 27일(화) 발간 예정인 2014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1. 문제의 제기

■ 최근 민간소비가 GDP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민간소비가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최근 10년간 실질 GDP 증가율의 연평균은 4.1%인 데 반해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의 연평균은 이를 하회하는 3.2%임.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보더라도 동기간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1.4%였던 반면,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0.9%임.

■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평균소비성향 = 가계의 소비지출/가계의 처분가능소득

- 인구의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구주의 중위연령이 2003년 44세에서 2013년 48세로 상승하였으나 동 기간 평균소비성향이 0.78에서 0.73으로 하락하였음.

■ 본고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 분포에 대해 분석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행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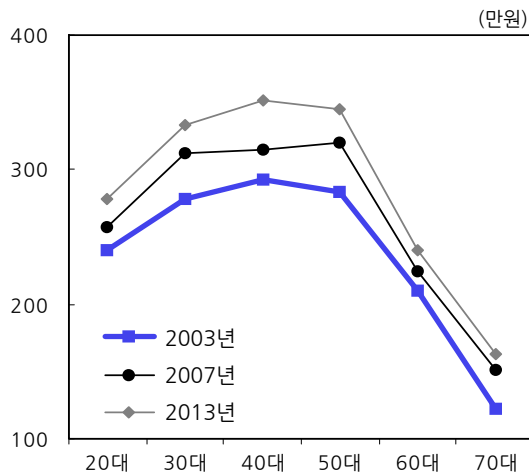
- 2003~13년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의 특징 및 연령별 분포의 변화 분석(자료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부록 1> 참조)
- 이를 바탕으로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의 변화와 고령화의 영향이 평균소비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2.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 소비 및 소비성향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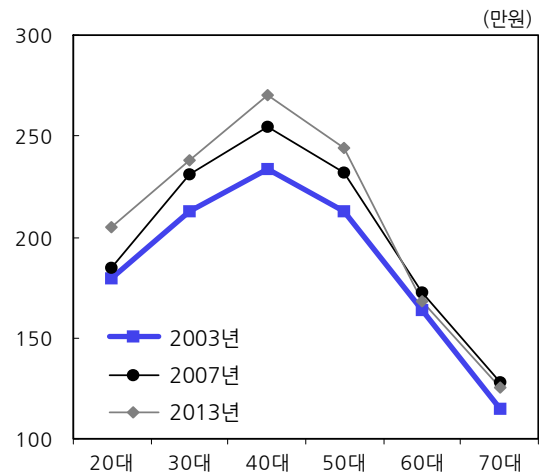
■ 지난 10년간 모든 연령층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였으나 60대 가구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실질 소비는 실질 소득보다도 더 큰 연령별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60대 이상 가구의 소비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침.

- 40대와 50대의 경우 지난 10년간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각각 연평균 1.7%와 1.8% 증가하였으나 60대는 1.2% 증가하는 데 그침.
- 40대와 50대는 지난 10년간 각각 연평균 1.3%와 1.2%의 실질 소비 증가율을 보였으나, 60대와 70대는 각각 연평균 0.3%와 0.8% 증가에 그침.

연령별 실질 처분가능소득



연령별 실질 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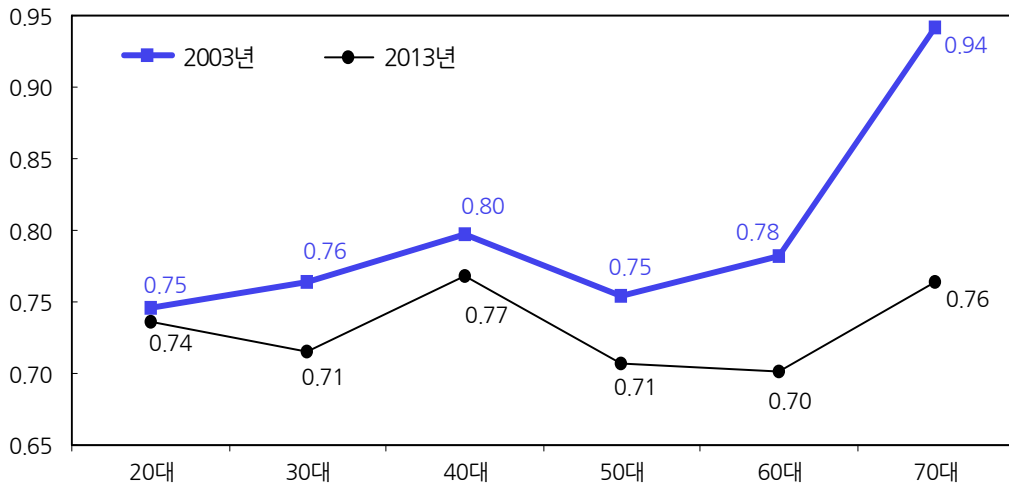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한편, 일반적으로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은 U자 형태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W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자세한 자료 분석은 <부록 III> 참조).

- 생애주기가설(life-cycle income hypothesis)에 의하면 연령별 소비성향은 소득이 높지 않은 20~30대에 높았다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구가하는 40~50대에 저축 증가로 낮아지고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높아지는 U자 형태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은 W자 형태로, 소득이 가장 높은 40대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오히려 높게 나타남.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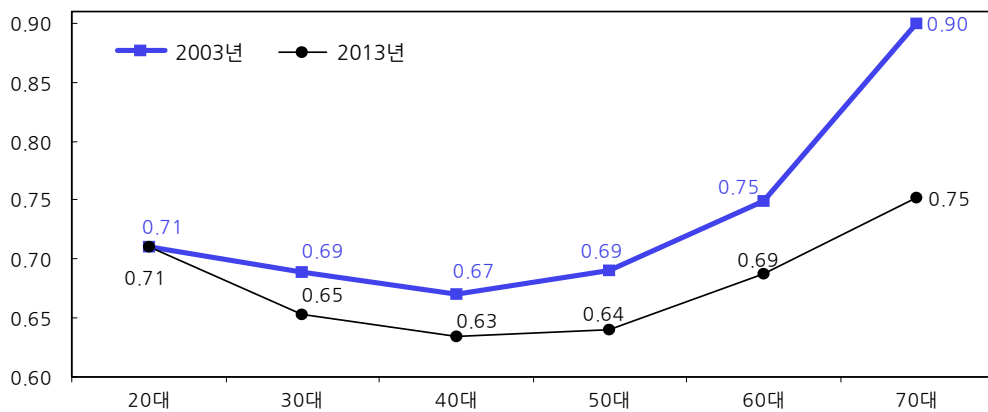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이처럼 우리나라의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이 W자의 특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장년층의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에 기인하고 있음(Box 참조).

●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뚜렷한 U자 형태가 나타남.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교육비 제외)



주: 교육비는 가계동향조사의 교육비에서 성인학원교육, 평생교육원, 국내 교육연수, 국외 연수비 지출을 제외하고 학습교재(유아용~중고생) 구입비를 더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시계열로 살펴보면 최근 10여 년간 전 연령층에서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60대 이후의 평균소비성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령층의 소비 및 저축 행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

- 60대와 70대의 경우 지난 10년간 평균소비성향이 각각 8%p와 18%p 하락하였음.

Box: 우리나라의 과도한 교육비 지출

■ 교육에 대한 소비는 자녀의 성장기에 주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소비품목과 달리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40대 처분가능소득의 약 14%(2003~13년 평균)에 달하는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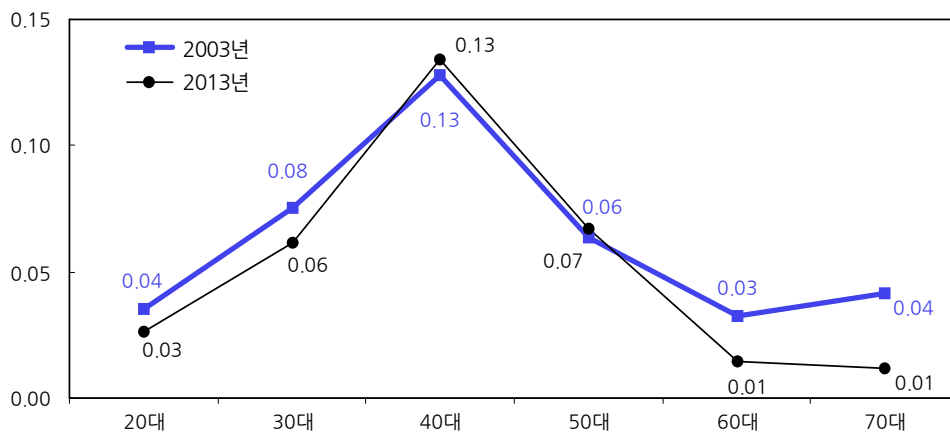
●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들로 한정할 경우 1인당 교육비* 지출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2003년 8%에서 2013년에는 10% 정도까지 증가

* (중등교육비+입시 및 보습+방문학습지+개인 과외비+중고생 참고서)/중고생 자녀 수

● 미국의 경우 40대 가구 기준으로 처분가능소득의 약 2.1%** 정도만이 교육비로 지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장년층의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향후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제약하는 매우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

** Consumer Expenditure Survey 원자료, 2003년 기준, 저자 계산

가구주 연령별 가처분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



3. 전체 평균소비성향 하락의 요인 분해

■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①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② **연령별 상대소득** 및 ③ **연령별 분포의 변화**로 분해하여 분석하고자 함(자세한 분해 방식은 <부록 II> 참조).

● 전체 평균소비성향(apc)은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apc_j), 연령별 상대소득(y_j/y) 및 연령별 비중(p_j)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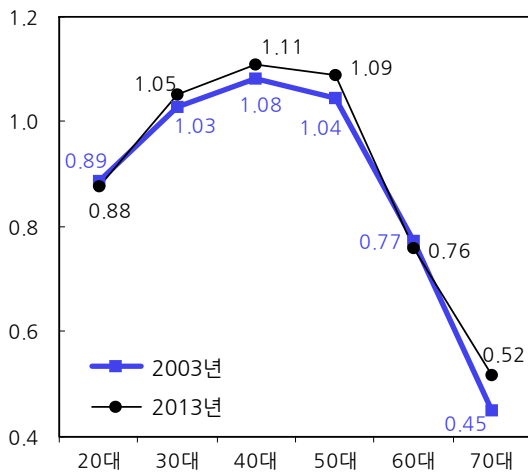
$$apc = \sum_{j \in \text{age group}} apc_j \times \left(\frac{y_j}{y} \right) \times p_j$$

- apc_j 는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으로 j 연령에 속하는 한 가구의 평균소비지출인 c_j 를 평균소득인 y_j 로 나눈 비율
- (y_j/y) 은 j 연령에 속하는 한 가구당 평균소득인 y_j 를 전체 경제의 한 가구당 평균소득인 y 로 나눈 비율
- p_j 는 j 연령별 가구 수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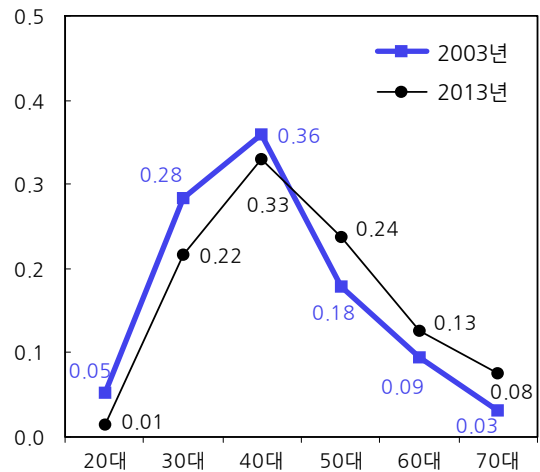
● 2003년 대비 2013년 연령별 상대소득은 60대에서 소폭 하락하였으며, 고령화의 진행으로 연령별 분포가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이동

-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p_j)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0~40대의 비중이 감소하고 50~70대의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60대 이상의 비중이 13%에서 20%로 크게 상승

연령별 상대소득(y_j/y)



연령별 가구 분포(p_j)



■ 이 세 개 요인들의 변화가 전체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추정하기 위해, 여타 두 요인을 고정한 상태에서 해당 요인만을 변화시킴으로써 각각의 기여도를 산출(자세한 설명은 <부록 II> 참조)

- 이와 같은 분해방법은 해당 요인만의 변화가 전체 평균소비성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는 것으로서, 요인들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분석 결과, 전체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에는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평균소비성향은 전 연령층에서의 소비성향 하락으로 4.6%p 하락하였는데, 이 가운데 50대 이상 평균소비성향 하락의 기여도가 2.2%p를 차지
 - 이와 같은 결과는 50대 이상의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2003년 및 2013년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기여도인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연령별 상대소득의 변화는 전체 평균소비성향을 2.1%p 상승시키는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은 결과는 여전히 우리 경제내 소비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30~50대의 상대소득 증가가 총소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하였음을 의미
- 연령별 가구비중 변화(즉, 고령화)의 경우, 연령대별 기여도가 큰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평균소비성향을 2.0%p 하락시킨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50대 이상 연령층의 인구비중 증가는 전체 소비성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40대 이하 연령층의 인구비중 감소에 의한 전체 소비성향 하락 효과가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남.

요인별 기여도

(%p)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전체
①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0.0	-1.3	-1.1	-1.0	-0.7	-0.5	-4.6
② 연령별 상대소득	-0.0	0.5	0.8	0.7	-0.1	0.3	2.1
③ 연령별 분포	-2.5	-5.1	-2.5	4.5	1.9	1.8	-2.0
① + ② + ③	-2.6	-5.9	-2.8	4.1	1.0	1.6	-4.4

4. 소비성향 하락의 원인

■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기대수명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근로가능 기간은 늘지 않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 2000년 이후 기대수명이 매년 평균적으로 0.45세씩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은퇴 시기는 이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이처럼 은퇴 후 생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후대책에 필요한 소요자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예상한 대부분의 연령계층에서 노후대비를 위해 소비성향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와 같은 소비성향의 하향 조정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뚜렷해지는 것으로 보이며, 현 중장년층 시기의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노후대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현재 40대와 50대는 교육비 지출성향이 가장 높았던 세대로서 이들이 고령층이 될 시점에도 소비성향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와 같은 원인 진단은 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현상과도 일관된 것으로 보임.

- 경제이론에 따르면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Precautionary Saving)이 증가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의 소비성향이 낮아지고, 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실제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03년 35%에서 2013년에 38%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50대 이상의 가구에서 그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50대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38%에서 48%로 10%p 증가하였고, 60대는 20%에서 26%로 6%p 증가

■ 한편, 주택가격 상승률의 둔화로 인한 부의 효과에 의해 소비가 감소했을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경로는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즉, 2003~13년의 기간 동안 자가거주자와 비자가거주자의 평균소비성향이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하여 부의 효과가 평균소비성향 하락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
 - 자가거주자의 평균소비성향은 0.77(2003년)에서 0.73(2013년)으로 4%p가 하락하였고, 비자가거주자의 경우에도 0.79(2003년)에서 0.74(2013년)로 5%p 하락(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되었던 2009~13년의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됨.)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지난 10년간 소비성향의 하락은 전 연령층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50대 이상 고령가구의 소비성향 하락이 전체 소비성향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전 연령층에서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현상은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생활유지에 대한 불안이 전 연령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결과인 것으로 사료됨.
 - 특히 30~40대의 교육비 지출이 과다한 점과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향후 이들 세대가 고령층이 되는 시기에는 민간소비가 더욱 제약될 가능성도 상존
- 이상의 논의는 최근의 민간소비 부진이 기대수명의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비활성화 대책도 단기적인 수요 진작의 관점보다는 구조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소득증대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재의 소비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고령화된 이후의 소비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따라서 기대수명의 증가를 고려하여 은퇴시기를 늦추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등의 정책이 지속 가능한 소비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교육 및 채용 시스템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비효율적인 과잉교육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하고, 가계 역시 자녀에 대한 투자와 노후대비저축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

■ 부 록 ■

I. 자료의 처리

■ 본고에서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

- 가계동향조사는 2003년부터 도시가구에서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표본화하였으므로 전체 경제의 대표성을 위하여 2003년을 선택
- 2006년부터 1인가구가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시계열의 연속성을 위해 2인 이상 전국가구에 대해서만 분석 진행
- 가구주 연령별 평균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가구주의 빈도가 낮은 20세 미만이나 80세 이상의 가구주 자료는 제외
 - 따라서 통계청의 공식통계와는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

II. 평균소비성향의 분해

■ 전체 평균소비성향은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연령별 상대소득 및 연령별 가구분포로 구성됨.

$$apc_t = \frac{C_t}{Y_t} = \frac{\sum_{j \in \text{age group}} C_{jt}}{\sum_{j \in \text{age group}} Y_{jt}} = \sum_{j \in \text{age group}} p_{jt} \times \left(\frac{y_{jt}}{y_t} \right) \times apc_{jt}$$

- apc_t 는 t 기의 전체 평균소비성향이며 apc_{jt} 는 j 연령 그룹의 평균소비성향, p_{jt} 는 j 연령 그룹의 인구비중
- 전체 평균소비성향 apc_t 는 총소득(Y_t)을 총소비(C_t)로 나눈 비율로서 총소득 및 총소비는 각 연령 그룹의 총소득(Y_{jt})과 총소비(C_{jt})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음.
- y_{jt} 는 j 연령 그룹의 평균소득으로서 해당 그룹의 총소득을 가구 수로 나눈 값이며, y_t 는 경제 전체의 총소득을 총가구 수로 나눈 값임.

- y_t 는 y_{jt} 의 가중합으로써 $y_t = \sum_j p_{jt} \times y_{jt}$ 이므로 가구분포(p_{jt})의 함수이기도 함.
- 한편, 연령별 가구분포와 연령별 상대소득의 곱은 전체 경제의 소득(Y_t) 대비 해당 연령 그룹 소득(Y_{jt})의 상대적 비중(s_{jt})임.

$$s_{jt} = p_{jt} \times \left(\frac{y_{jt}}{y_t} \right) = \frac{Y_{jt}}{Y_t}$$

- 연령별 평균소비성향과 연령별 상대소득의 곱은 해당 연령 그룹의 평균소비(c_{jt})를 전체 경제의 평균소득(y_t)으로 나눈 값임.

$$\left(\frac{y_{jt}}{y_t} \right) \times apc_{jt} = \frac{c_{jt}}{y_t}$$

■ 전체 평균소비성향의 시점 간 변화는 각 요인별 변화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음.

$$apc_{2013} - apc_{2003} = \sum_j \Delta apc_j \left(\frac{\bar{y}_j}{\bar{y}} \right) \bar{p}_j + \sum_j \Delta \left(\frac{\bar{y}_j}{\bar{y}} \right) \overline{apc_j p_j} + \sum_j \Delta \bar{p}_j \overline{apc_j} \left(\frac{\bar{y}_j}{\bar{y}} \right) + residual$$

- 변수 x 의 변화인 Δx 는 $(x_{2013} - x_{2003})$ 이며 고정값인 \bar{x} 는 $(x_{2003} + x_{2013})/2$
 - 다만, 상기 방법은 1차적 근사식(first-order approximation)¹⁾이므로 요인별 합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잔차(residual)가 발생함.
- 또한 상기 방법 이외에도 요인별 고정값인 \bar{x} 를 2003년 또는 2013년으로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분석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고정값 \bar{x} 를 2003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전체 평균소비성향의 변화에 대하여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는 -4.3%p, 연령별 상대소득의 변화는 2.0%p, 고령화의 영향은 -1.9%p로 나타남.
 - 고정값 \bar{x} 를 2013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전체 평균소비성향의 변화에 대하여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는 -4.8%p, 연령별 상대소득의 변화는 2.1%p, 고령화의 영향은 -2.1%p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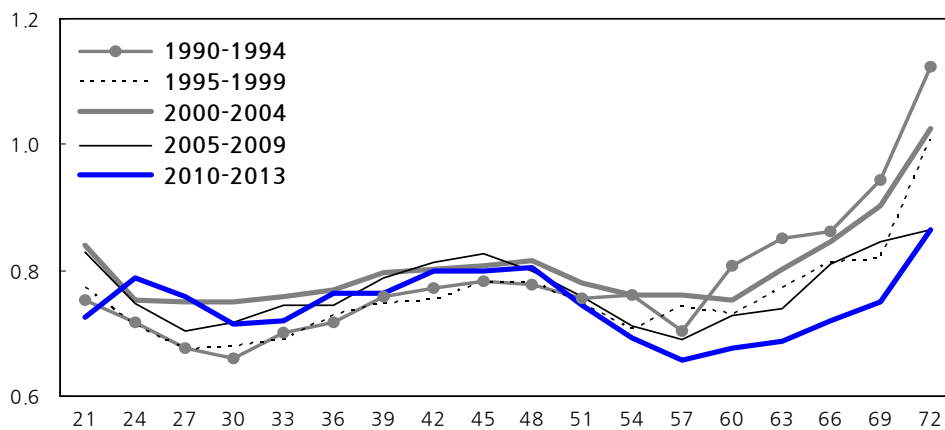
1) $z = abc$ 일 때, $\Delta z \approx bc\Delta a + ac\Delta b + ab\Delta c$

Ⅲ. 1990년대 이후의 연령대별 소비성향

■ 장기시계열이 가능한 도시가구(2인 이상) 기준으로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령별 평균소비성향과 교육비 제외 평균소비성향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가구주 기준 21살부터 3살 단위로 그룹화하고 5년간의 평균치를 구함.

연령별 평균소비성향(도시가구 기준)



연령별 평균소비성향(도시가구 기준, 교육비 제외)

